

제 10 장

미나마타병 교훈의 계승, 발신

미나마타병의 교훈

미나마타병을 경험한 우리 미나마타시민은, 여기서 얻은 교훈을 경중으로써, 이 지구상에서 미나마타병과 같은 비참한 공해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또 후세에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나마타병의 교훈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입장과 시점으로부터 보여졌습니다. 우리들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원점으로 하여, 이것을 인류공통의 교훈으로써 공유하고, 환경을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게끔 책임을 다해가려고 합니다.

미나마타병 희생자 위령식의 개최

미나마타시에서 1992년 5월 1일, 미나마타병의 발생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과 환경파괴에 대한 반성과 환경재생에의 결심을 담아, 전 시민이 기도를 올리기 위해 미나마타병 발생현지인 미나마타만매립지에서 '미나마타병 희생자 위령식'을 개최되어, 지금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에코파크 친수호안에 설치한 미나마타병 희생자 위령의 비석앞에 회장으로 된 식전에는, 환자, 유족을 비롯한 환경대신, 쿠마모도현지사, 국가, 현 각관계기관대표, 첫소대표와 많은 시민이 참가하여,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미나마타병 교훈의 계승과 미나마타재생의 결심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미나마타병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열리는 위령제

환경미나마타상의 창설

미나마타시는 1992년 6월 29일, 미나마타병의 경험을 교훈으로써, 환경보전, 재생창조에 관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짊어지고, 이에 관련된 활동을 육성하고, 조사연구를 진행시킨 개인, 단체를 현창하는 것을 목적으로써, 국내 및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환경미나마타상'을 창설하였습니다.

2006년(제9회)까지 20단체 개인 6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1997년(제5회)부터는 미나마타시민을 상대로한 특별상(환경미나마타시민상)을 새로 설립하여, 4단체 개인 1명을 표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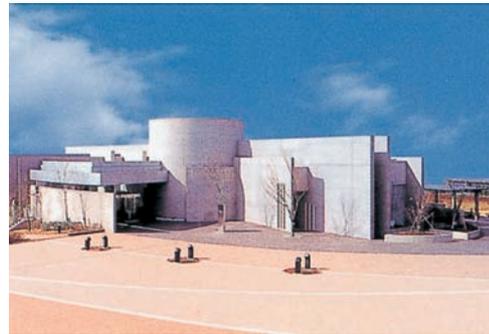


제9회 환경 미나마타병 수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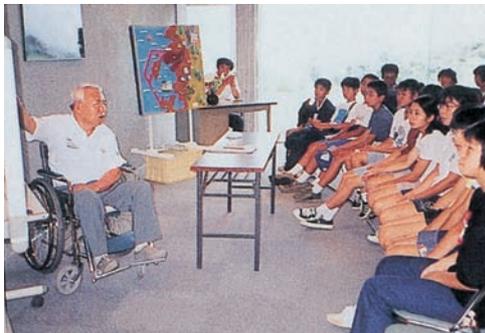
미나마타시립 미나마타병자료관의 개관

미나마타시는 1993년 1월, 미나마타병의 경험을 입각하여, 비참한 공해를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한 염원으로, 미나마타병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귀중한 교훈을 인류에게 경중으로써 계승, 발신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미나마타병자료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자료관에서는, 미나마타병의 역사와 과학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 자료를 전시함과 동시에 도서 등 관계자료 열람 서비스, 비디오 대여, 자료수집, 보존을 진행하고, 또 1994년부터 미나마타병환자로부터



미나마타만을 바라보는 언덕 위에 있는 미나마타병자료관



초등학생에 말하는 증언인의 하마모토 쓰기노리씨

직접 체험담을 들을 수 있는 ‘증언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나마타병의 경험과 교훈을 넓게 계승, 발신해나가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마다 환경학습의 장소로써 자료관의 평가가 높아져와서 2006년에는 2만 8천명을 넘는, 중고등생들이 내관하는 등 연간 약 4.6만 명이 방문하여, 개관 이래 총 입관자수는 57만 명(1999년 9월 현재)을 넘었습니다.

미나마타시립 미나마타병자료관 증언부회 회장 하마모토 쓰기노리씨로부터

‘두 번 다시 미나마타병과 같은 비참한 공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미나마타병을 전하기 위해 증언부회가 존재합니다. 지금, 풍요로운 생활속에서, 자연이 오염되고, 건강이 해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리하고 풍부한 살림을 원한다면, 자연을 오염시키지 말고,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해의 무서움과, 사람으로써 해서는 안 될 일 담화부를 통해 느끼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21세기를 모두들 힘을 합쳐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미나마타시의 초등학생들과 니이가타의 초등학생들이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나마타메모리얼

미나마타메모리얼은 (1)미나마타병에 의해 희생된 분들에 대한 위령, 진혼 (2)미나마타병의 경험에 입각하여, 재난을 두 번 다시 반복시키지 않겠다는 기념 (3)미나마타병을 후세에 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써 미나마타병공식발견으로부터 40년째가 되던 1996년 10월에 건설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미나마타병 희생자 위령식 회장으로 되었습니다.



테라스에 분수 메모리얼 볼이 배치된 미나마타 메모리얼

미나마타병 희생자 위령비



2006년부터는 에코파크 친수호안에 설치된 미나마타병 희생자 위령비앞에서 미나마타병 희생자 위령식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미나마타병관련사업의 개최

1999년5월,미나마타시장이하 대표단 30명이 출석하여,중국 친황다오(秦皇島)시의 중국환경관리간부학원에서 동원주최로,미나마타병의 교훈과 재생에향한 미나마타의 모습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나마타병환경문제 심포지엄’과 ‘미나마타병 자료전’을 개최하였습니다.5월4일 심포지엄에는 시민450명이 참가하고,자료 전에는 3000명을 넘는 사람들이 견학하였습니다.

또 5월6일에는 베이징대학을 방문하여,시장이 ‘미나마타병의 경험과 교훈’을 제목으로 70명의 학생들앞에서 강연하고,환경의식의 고조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시 스스로 의한 환경외교는 미나마타병의 경험과 교훈을 세계에 알리는 스텝으로 되어,후에도 환경면에서의 국제공헌에 연결되어 왔습니다.



미나마타병 환경문제 심포지엄 (1999년5월)

국제협력사업단(JICA)연수를 받아들임

미나마타시에서는,국제협력사업단(JICA)규슈국제센터가 아시아의 환경행정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제1기 2000년도부터 4년동안 받아들인 후,제2기 2005년 부터 5년간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환경모델도시를 목표로하는 미나마타시에서 ‘지방자치체에 의한 환경재생,보전행정(미나마타병의 경험과 교훈)’을 테마로 약 1달간 연수가 실시됩니다.연수내용으로써는 미나마타병의학습과 미나마타시의 환경정책등을 중심으로 시민과의 의견교환등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6년은 타이,칠레,코스타리카,쿠바,케냐,멕시코,페루,베트남 8개국으로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의 환경행정담당자9명이 참가하여 실시되었습니다.

미나마타병정식확인 50년사업

2006년은 미나마타병이 정식확인되어서 50년을 맞는해이었습니다.

이 50년을 맞으면서,깊은 진혼의 기도,깊은 반성,생명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새로운 재생을 도모해가기 위해,미나마타병피해자단체,시민단체,직소,행정 등 49개의 대표로된 미나마타병정식확인50년사업 실행위원회를 조직하고, ‘기억,기도,그리고 미래에’를 테마로,미나마타병희생자위령식을 비롯한 ,태아성미나마타병환자,장애자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창작무대 ‘미나마타에서 살아간다’를 상연, ‘모야이날에 1000명콘서트’ 등 30여개의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